

2006년 2월

주요 경제이슈 분석

- 환율변동이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-

1. 최근의 원/달러 환율 추이
2. 환율변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
3. 정책적 시사점

충청북도·충북개발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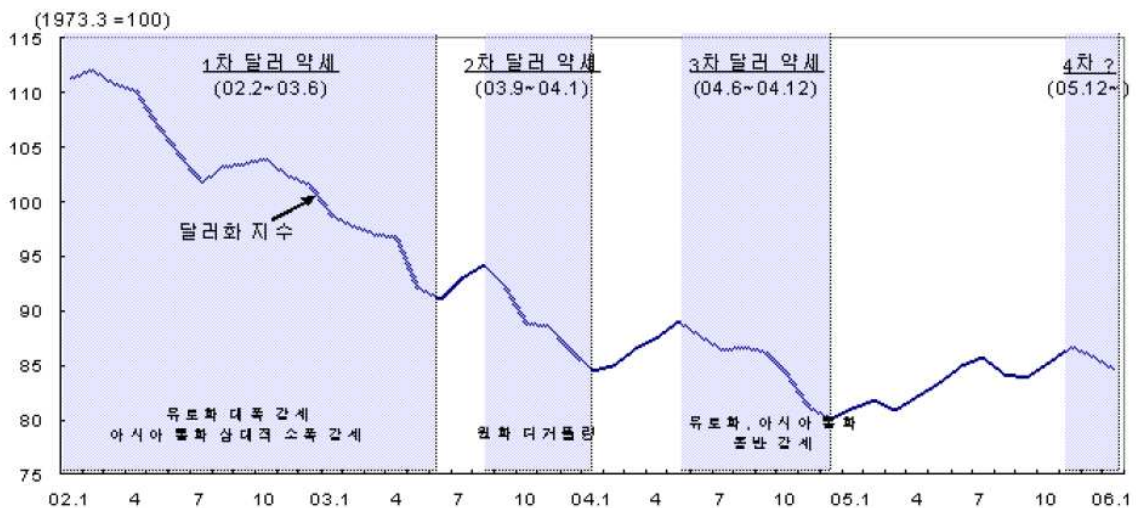
Chungcheongbuk-do·Chungbuk Development Institute

1. 최근의 원/달러 환율 추이

□ 2002년 이후 원/달러 환율 하락추세 지속

- 2002년 이후 달러화는 일시적 강세기조를 유지하다 다시 약세추세를 보이면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음.
-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호조세, 금리인상등의 재료가 시장에 공급되면 일시적으로 강세로 반전
- 최근 달러화 약세기는 강세기에 비해 약세기가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

2002년 이후 달러화 지수 추이



주: 달러화지수는 유로지역 11개국, 캐나다, 일본, 영국 등 17개국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를 각국의 교역량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(1973년 3월=100)

자료: Federal Reserve Board

□ 달러화 약세 요인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이며 미국 정부의 '약 달러' 정책도 일조

- 부시행정부 이후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적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

- 부시 행정부가 산업계 출신 관료들을 등용해 약한 달러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환율조정 압력을 행사한 것도 달러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.

□ 지속적인 원/달러환율 하락은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채산성을 악화시켜 우리나라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

- 환율하락이 충북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원화강세가 지속될 경우 지자체 및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시점임.
- 본 연구에서는 충북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이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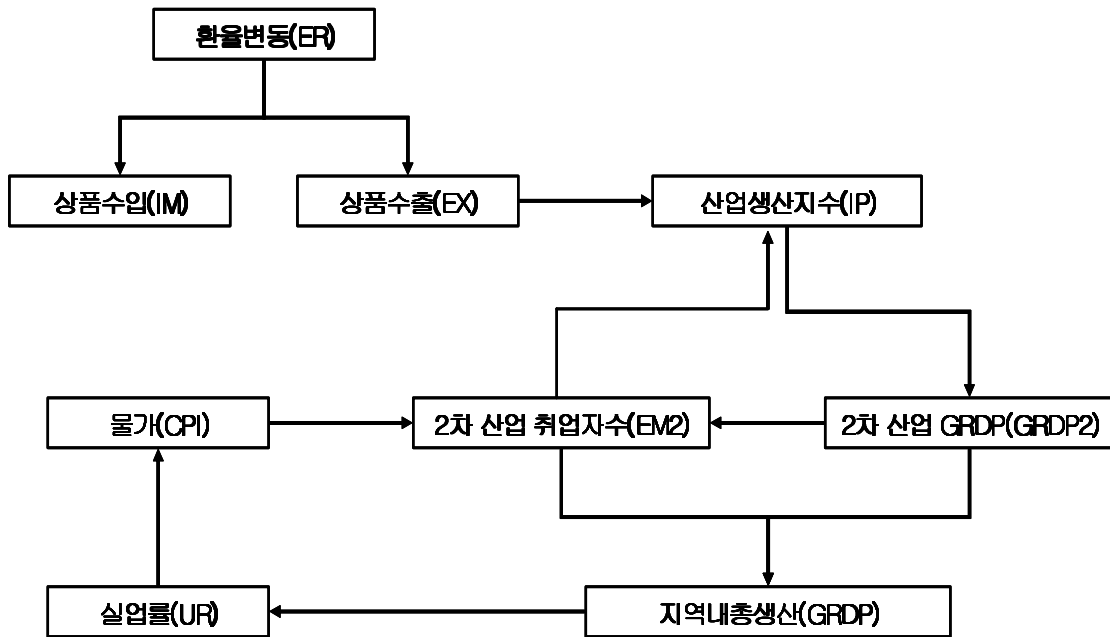
2. 환율변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

□ 환율변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

- 분석에 이용된 거시모형에서 환율변동은 대외거래의 수출,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됨.
 - 환율상승의 경우 수출은 증가효과를 수입은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수출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가져와 산업생산지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.
 - 그러나 수출의 상당부분을 원재료 보다는 가공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수출증가로 인한 지역총생산은 주로 2차산업생산의 증가로 이어져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.
 - 한편, 2차산업 생산의 증가는 노동수요를 유발시켜 2차산업 취업자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, 이는 다시 산업생산지수의 증가를 가져와 지역내총생산의 증가로 되게 됨.

- 지역내총생산의 증가는 실업률의 하락을 가져오며 이는 필립스곡선으로 알려져 있는 물가와 실업률간의 역의 관계에 의해 물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
- 고용함수에 실질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가의 변화는 실질임금의 변화를 가져와 2차산업 취업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다시 산업생산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순환과정을 거치게 됨.

<충북거시계량모형에서 환율변화의 파급효과 경로>



□ 환율이 10% 상승할 경우

- 환율의 평가절상은 수출의 증가와 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순수출의 증가로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충북 지역경제의 생산 부문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시기별로 계측하였음.
- 분석결과 환율이 10% 상승하였을 경우, 충북의 GRDP는 연평균

0.117% 만큼 상승시킴.

- 분기별로는 첫 번째 분기에 상승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4분기에 환율인상에 따른 생산증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.
- 이는 환율상승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일정기간 후에 나타난다는 소위 J-curve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<환율 10% 인상시 모의실험 결과>
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평균
지역내총생산(GRDP)	0.066	0.109	0.138	0.153	0.117
취업자수(EM)	0.004	0.009	0.015	0.021	0.012
실업률(UR)	-0.073	-0.217	-0.370	-0.449	-0.277
소비자물가(CPI)	9.62E-05	9.48E-05	18.9E-05	18.7E-05	14.2E-05
수출액(EX)	2.344	3.743	4.573	5.062	3.930
수입액(IM)	-2.649	-3.233	-3.363	-3.392	-3.159

- 충북의 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라 지역의 생산활동이 활성화되어 노동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지역내 취업자 수(EM)가 증가하고 실업률(UR)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.
- 고용부문은 환율이 10% 상승함에 따라 지역의 총 취업자 수 증가율이 연평균 0.012%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- 경제성장률 상승이 고용부문에 주는 영향은 1분기에 가장 작고 시간이 갈수록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수요가 생산물 시장의 파생수요로 기업은 증가된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잔업, 특근 등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킨 후 이차적으로 신규노동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.
- 고용부문을 실업률(UR) 측면에서 보면 환율 10% 증가에 따라 0.277%의 실업률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
- 환율상승은 지역물가(CPI)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역물가의 경우 특히 전국물가와 동행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.
- 지역경제의 변수 중, 환율변화에 직접적이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문은 대외거래로 환율이 10%상승하였을 때, 수출(EX)은 연 3.93%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수입(IM)은 3.159%의 감소효과를 가져와 환율인상에 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.

□ 환율이 10%하락할 경우

- 최근의 환율변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환율이 10% 하락하는 경우를 분석하였음.
 - 환율이 하락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국내상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.
 - 물론 수출입의 탄력도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.
- 환율이 10% 하락할 경우, 충북의 GRDP는 연평균 0.129% 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 - 분기별로는 첫 번째 분기에 감소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4분기에 환율하락에 따른 생산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.
 - 또한 수출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, 같은 비율의 환율 변화에 대해 인상의 경우보다는 인하의 경우에 더 크게 지역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
<환율 10% 인하 시 모의실험 결과>
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평균
지역내총생산(GRDP)	-0.073	-0.121	-0.152	-0.168	-0.129
취업자수(EM)	-0.004	-0.010	-0.017	-0.023	-0.014
실업률(UR)	0.080	0.239	0.407	0.494	0.305
소비자물가(CPI)	-0.96E-05	-18.9E-05	-28.3E-05	-28.1E-05	-21.2E-05
수출액(EX)	-2.528	-3.981	-4.822	-5.312	-4.161
수입액(IM)	3.012	3.700	3.854	3.889	3.614

- 환율하락에 따라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이 감소하면, 지역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지역내 취업자 수(EM)가 감소하고 실업률(UR)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.
- 고용부문의 분석 결과는 환율이 10% 하락함에 따라 지역의 총 취업자 수 증가율이 연평균 0.014%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 - 시간에 따른 파급효과도 인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분기에 가장 작고 시간이 갈수록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이 하락할 경우 취업자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.
 - 실업률(UR)은 환율이 10%하락할 경우 0.305%의 실업률 증가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- 환율인하는 지역물가(CPI)에 하락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.
- 수출(EX)의 경우 환율이 10% 하락하였을 때, 연 4.161%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수입(IM)의 경우는 3.614%의 감소효과를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.

3. 정책적 시사점

□ 지역경제에 있어 환율은 외생변수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여야 함.

- 지방정부는 환율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사전에 환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변동 보험 가입 확대 등을 적극 유도
 - 중앙정부 또한 환율변동 수출보험 인수액을 늘리고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여야 함.
 - 지방정부 역시 수출보험공사 등의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을 실시

□ 기업은 환위험 분산 경영을 통해 환율하락과 변동에 대응

- 수출기업들은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 특정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결제통화로 달러외에 유로화나 엔화의 비중을 확대
 - 수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의 경우 환율하락과 변동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내수시장 개척에 노력하여야 함.
-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, 생산구조의 고도화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노력
 - 충북의 수출주력품목인 IT제품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.
- 중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 취약업종이나 기업군은 M&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